

The Word XIV.

“성경이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1. 하나님의 말씀 - 성경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 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All Scripture is God-breathed)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이해와 깨달음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되는 일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선 양날의 검으로 묘사된다. 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 속을 꿰뚫어 낸다. 숨길 수 없다.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숨겨진 의도를 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다. ‘의도’는 행동하게 하는 동기를 말한다. 의도가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도의 투명함이 정직함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투명함’이다. 투명함이란 정직함이다. 속이지 않는 마음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자세를 말한다. (어린 아이들처럼)

(3) 혼과 영을 갈라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베드로전서 4:6]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고상한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영적인 삶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삶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 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정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증의 기간 -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확신’의 시간을 말한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각을 뜨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4:13-14]

13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4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까지 알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영광과 혼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말씀의 검을 사용하신다.

(4) 분리 되지 않은 죄의 본성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죄의 본성이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질 때 죄의 영향력이 커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욕망을 따른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자리에 사람과 자기 뜻이 자리를 잡는다.

[누가복음 14:26-27]

26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면 ‘미워하라’고 도전하신다. 즉, 제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 장면은 수도사의 수행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영적인 삶의 풍성함으로서의 초대와 말한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복되시다. 그래서 그 분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요구하신다. 그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사장 예수님의 사역

[히브리서 4:15-16]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1) 사랑이 많으신 제사장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진짜 이해와 동정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가 진짜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인간의 연약함은 실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신다. 그 이해가 바로 사랑이다.

(2) 제사장인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 ‘자기’가 강력해 질 때, 담대하게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칼은 사랑의 칼이다. 그 분에게 내 자신을 맡길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할 때, 말씀의 칼은 내 영에서 혼을 분리해 낼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능력 아래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3) 분별하여 승리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 않는 본성을 십자가 위에 놓을 때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다. 이 세상의 교묘한 말들을 조심하라. 거짓 위로, 거짓 평화, 거짓 해답을 조심하라.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 깨달음이 진리가 아니다. 혼의 영역을 만족시키는 거짓 위안, 즉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복음은 가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죄 된 본성의 혼의 분리는 깨달음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하다.